

21세기 교육·문화의 지역 중심대학, 춘천교육대학교

박민수
춘천교육대 총장



1. 예순 해, 오직 한 길

물 맑고 공기 깨끗한 호반의 도시 춘천. 그 동쪽 언저리의 양지 바른 곳에 춘천교육대학교는 자리하고 있다. 술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60년 전 초등 교사 양성 기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지금까지, 오로지 한 자리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1939년 4월 1일에 '춘천사범학교'(5년제)로 개교하였다. 8·15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고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1962년에 춘천교육대

학(2년제)으로 승격·개편하였으며, 1983년에는 춘천교육대학(4년제)으로 승격하였다. 1993년에는 춘천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6년에는 대학원(석사 과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선도하는 초등 교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60년 동안 한결같이 '유능한 초등 교사의 양성'을 추구해 왔다. 현행의 학칙에도 "민주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심오한 학문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능력과 고매한 품성을 지닌 유능한 초등 교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같은 목적 아래 예순 해 동안 약 15,000명의 초등 교사를 배출하였는데, 그들은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초등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가족적인 인간 관계, 쾌적한 환경

1998년 4월 1일 현재 우리 대학교의 재적 학생은 학부생이 1,800명, 대학원생이 174명으로 모두 1,974명이다. 전임 교수는 60명이며, 조교는 10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5명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하나, 조교의 증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직원은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을 합하여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속 초등학교에는 교원 24명, 직원 6명이 있다. 우리 대학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 관계는 매우 화목하며 우호적이며 개방적이다. 교수, 학생, 직원, 교사 등 집단 내부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집단 상호간의 관계도 그러하다.

학부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고루 갖추도록 각 교과교육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1개 교과를 선택하여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전공하게끔 되어 있다.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실과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초등교육 등 12개가 그 심화 과정이다. 그리고 대학원(석사 과정)에는 도덕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교육행정, 교육방법, 과학교육, 실과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등 11개 세부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시설로는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미술관, 예능관, 실과관, 강의동, 종합관(강당 포함), 행정관, 기숙사(2동) 등이 독립 건물로 있으며, 오는 여름 완공을 목표로 과학관이 신축되고 있다. 앞으로 기숙사를 현대식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행정 본관, 멀티미디어관, 미술관을 비롯하여 실내 수영장, 야외 극장을 차례로 신축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의 특징적인 교육 시설로는 과학·실과·음악·미술·체육 등을 제외한 일반 교과교육 강의를 위한 특별강의실을 들 수 있다. 영어회화 실습실 등 특별강의실에는 기본적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각 교과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실에는 60대의 펜티엄급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으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의 공간은 매우 쾌적하며 안정감과 친근감을 준다. 봄과 여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3. 교육대학 종합 평가에서 3개 부문 ‘우수’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해에 “인간 중심주의 교육 정신 아래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유능한 초등 교사의 양성”을 지향하여 일로 매진해 왔다. 앞으로 인류는 도도히 흐르기 시작한 첨단 정보화의 물결을 거스르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앞에서 자칫 잘못 하다가는 정작 소중한 ‘인간’을 상실할 우려가 없

지 않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슬기롭게 가치화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초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지향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이태 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먼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현장화하기 위하여 '교수 협력제'와 '부분 시간강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수 협력제'는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학교나 교사가 교수의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 교수가 그에 응하여 협력하는 제도이다. '부분 시간강사제'는 교사의 현장 실무 경험을 강의에 적극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특정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가 강의 시간의 일부를 현장 교사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또한 우리 대학을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목요 강좌'와 '리의도의 말글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어린이날 큰잔치'를 치르고 있다. '목요 강좌'는 재학생과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교양 강좌이다. 교육이나 문화 전반에 걸쳐 교내·외 전문 인사를 초빙함으로써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야를 넓혀 주고 있다. '리의도의 말글밭'은 본교 국어교육과 리의도 교수가 우리 말과 글에 관한 상식을 컴퓨터 통신 유니텔에 매일 공개하는 것으로, 올해로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어린이날 큰잔치'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5월 5일에 강원도내 어린이를 초청하여 문학·음악·미술·체육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거리와 할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수들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 춘천교육대는 대학 발전의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정기 정책 포럼인 석우 포럼을 열어 왔고, 여기에서 '21세기 교육·문화의 지역 중심대학 육성'을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사진은 대학의 중·단기 발전방안을 논의한 제2회 석우 포럼).

위하여 '연구 교수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강의 방법을 개발·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강의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강의 공모제'를 시행한다. '강의 공모제'는 교수가 특별한 강의 방법을 구안하여 학교에 공개 강의를 신청하면 여러 교수들 앞에서 공개 강의의 기회를 주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본교는 우수한 교사 자원을 유치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1999학년도부터 입학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일반 전형에서 정시 모집 외에 특차 모집을 실시하고, 그 밖에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학교장 추천 특별 전형을 병행한다. 그리고 열린 교육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실시한다.

또한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대학 구성원의 아이디어와 여론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우 포럼'을 수시로 열어 교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며, 외부 인사들로 '대학발전연구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 개혁 평가'에서 전국 12개 교사 양성 대학 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교협에서 주관한 '교육대학 종합 평가'에서는 3개 영역에 걸쳐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4. 21세기 교육·문화의 지역 중심대학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 사회는 우리에게 엄청

난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 대학교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1999년이 개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00년에는 앞으로 학교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학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본교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한편으로는 외부에 자문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20세기를 마무리짓고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중·단기 발전 계획으로 '춘천교육대학교의 발전 방안-21세기 교육·문화의 지역 중심대학 육성'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과거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층 더 투명하게 확립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과 노력의 결과를 계승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새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려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뿌리 깊이 심는 작업인 것이다.

이 계획에서 본교의 발전 방향을 '21세기 교육·문화의 지역 중심대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우리 대학교가 그 터전이 되는 강원도 지역의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 정립은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서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 좀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며,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

심과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 내어, 다가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대학교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전 지표 아래 ‘대학의 교육·연구의 내실화’, ‘교육 현장과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중심화’ 등 크게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의 교육·연구의 내실화’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초등교육을 이끌어갈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모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초점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약한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의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을 연계시킨 교육 프로그램인 통일 교육, 환경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의 체제 구축이 포함된다. 이 밖에 인간 존중의 민주적 덕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대학원 교육 내실화, 교육 기본 시설의 완비와 첨단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 문화의 정착,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 정보화 체제의 구축, 자연친화적 대학 캠퍼스 환경 구성, 대학 자체 발전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다.

둘째, ‘교육 현장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원도 초등교육 발전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약한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대학 내의 활동에 머물지 않고 현장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교육대학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학교 현

장에서 한층 수준높은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지원과 상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서 형성된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 복식 학급, 통합 학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열린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자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학교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교수와 교사의 공동 연구체를 확대하고, 졸업생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평생 교육장으로 대학이 활용되게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중심화’는 우리 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우리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사회 봉사의 역할을 소홀히 해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60년 동안의 교사 양성을 통한 교육과 연구를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독특한 교육적·문화적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사회의 교육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대학 내에 사회교육원을 설치할 것이다. 사회교육원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며, 민주 사회의 원숙한 시민 의식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굳게 다져 나갈 것이다. ■